다산포럼

남영신

문화의 다양성과 방언

지난 200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다양한 문화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기초이므로 인류는 문화 다원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 다원주의의 바탕은 모어(母語)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모든 이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특히 모어로 자기 작품을 창조하고 배포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문화 다양성을 전적으로 존중하도록 질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방언은 인간의 언어

어떤 심리적 억압도 받지 않고 모어를 이용해서 문화 창조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이를 '문화권(文化權)'의 내용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서 수많은 소수민족 내지 원주민의 언어가 사라짐으로써 이들의 언어가 가진 문화와 사상을 접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어찌 보면 제국주의자들의 배부른 반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반성을 하게 된 것만이라도 고맙고 반갑다.

넓게 보면 국가 사이에서 지배언어와 피지배언어 간의 먹고 먹힘이 인류의 언어 유산을 파괴하고 있지만, 좁게 보면 국가 안에서 표준어와 방언 사이의 먹고 먹힘이 한 겨레의 언어유산을 파괴한다. 언어 파괴에 관한 한 피지배언어의 죽음이나 방언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세계화에 몸을 담그기 위해서 영어를 공통어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국민 통합이라는 명제 아래에서 표준어로 민족어를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다르지 않다. 전자는 영어를 지상의 언어로 생각하여 모어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고, 후자는 표준어를 지상의 언어로 생각하여 방언의 목을 조이려 하기 때문이다.

방언은 서울 또는 중심 지역이 아닌 '변두리 지역의 언어'라는 어감이 강하여 이 용어를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이 방언 대신에 '탯말'이라는 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어떻든 방언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기 어버이에게서 들으며 배운 언어이므로 지극히 인간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표준어는 국가의 정치적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언어이다. 이 비인간적인 언어가 지극히 인간적인 언어를 몰아낸다면 한국어 속에서 한국인의 맛과 냄새, 곧 우리의 개성 있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한국인의 삶은 한국인이 사용하는 방언 속에 녹아 있고, 한국문화의 다양성은 방언의 다양성 속에 존재한다. 방언을 빼고 어떻게 지역문화를 논하며 지역문화를 빼고 어떻게 한국문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한국문화의 폭과 깊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땅히 방언에 대한 복권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방언을 살리려 한다면 먼저 방언 사용자들의 언어생활이 스스로 떳떳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언은 하위 언어요, 표준어는 상위 언어라거나, 방언은 무식한 시골뜨기의 언어요, 표준어는 유식한 도시민의 언어라는 식의 언어 인식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지역민 스스로 방언 살려야

이제부터 우리는 각 지역민이 방언을 자연스럽게 활용하여 삶과 문화를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 외부적인 인식이나 평가 때문에 방언을 기피하는 자기 검열 의식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각 지역이 자기 언어로 교육을 하고, 문학을 하고, 공연을 하고, 방송을 하고, 방언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방언과 방언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한국어의 줄기를 만들어 내고, 이 줄기를 표준어(또는 공통어)에 접목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방언도 살리고 한국어도 살리고, 지역문화도 살리고 한국문화도 살리는 성과를 거두어 문화의 세기에 문화로 성공하는 민족이 될 수 있으리라.

〈국어단체연합 국어상담소장·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창준

생활체육 도약의 기회, U-대회 재도전을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영위하는 삶 속에서 가볍게 즐기는 운동이다.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하는 걷기, 청소, 빨래 등 굳이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다.

바로 이런 일상이 생활체육의 시작이다. 하지만 요즘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며 신나게 즐기면서 또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육시설에 대한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얼마 전 광주시민의 이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가 실패로 돌아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국제대회 유치를 계기로 국제적 규모의 스포츠 인프라를 확보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큰 대회 유치 기반을 구축,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아직까지 광주는 세계 대회를 개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시설 확충, 전문인력 보급, 제도 개선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이것이 세계 대회를 유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게다가 광주라는 도시를 세계에 알려 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 바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한 번에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듯이 경험과 실패를 거울 삼아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재도전을 통해 유치를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짧은 유치 기간과 시민 공감대 없이 진행되었다는 평도 있었지만 광주시민의 열기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이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으니 광주의 열정은 이미 전해진 것이다.

그리고 옛말에 '삼 세 번'이라는 말도 있듯이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한 러시아도 세 번의 도전을 통해 더 큰 기쁨을 만들어냈지 않는가.

대학인들의 축제인 만큼 16개 대학이 소재해 있는 광주는 다른 어느 곳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강점을 갖추고 있다.

우리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만 있다면 2015년은 승리의 낭보를 듣게 되리라 믿는다.

요즘과 같이 어려워진 경제와 치솟는 물가에 큰 비용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스포츠 활동인 생활체육은 행복과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2015 하계 U-대회'를 통해 체육시설 뿐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확충 등 완벽한 삼박자를 이뤄 건강한 일등 광주 시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도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자는 '스포츠 7330 캠페인'을 통해 공원, 놀이터, 약수터 등 쉽게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소외 계층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찰칵! 동물세상

개코원숭이 왕의 잠

고양이나 개처럼 털 가진 동물들이 무더운 여름철 물이나 시원한 그늘을 찾기 힘들 때, 가장 널리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낮잠자기'이다. 그야말로 아침밥 먹을 땐 빼곤 하루 종일 잠을 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원숭이들 역시 낮잠자기를 무척 선호한다.

원숭이들은 몸이 워낙 유연해서 그런지 낮잠 자는 폼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앉아서 자는 녀석-주로 암컷들이 잘한다-두 다리를 쭉 뻗고 벽에 기대 자는 녀석, 어떤 녀석은 줄에 매달려 아슬아슬하게 자기도 한다. 대개 불편한 폼의 잠은 주로 일반 원숭이들 몫이고, 수컷 대장들은 훨씬 잠자는 게 편안해 보인다.

사진에 보는 이 녀석처럼 낭떠러지 같은 벽에 고개를 내밀고 아슬아슬하게 자기도 하고 마치 죽은 것처럼 배를 깔고 큰 대자로 뻗어 드르렁 드르렁 코까지 골기도 한다. 그러면 다른 원숭이들은 한쪽 구석지로 몰려 자리를 양보하거나 아니면 잠자는 동안 털 다듬기를 해주기도 한다. 아마도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원숭이만한 호사를 아무나 누리긴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일반 원숭이들이라면 약간의 인기척이나 자극에도 금방 화다닥 일어나 주변을 경계하기 마련인데, 이 태평한 수컷 우두머리는 아랫것들을 믿고 아예 나 잡아가라 하고 주위 자극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그 자세 그대로 눈만 꿈벅이다 도로 감아 버린다. 가끔은 갇힌 저 원숭이가 자유로운 나를 조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사설

지역축제, 강진청자문화제 성공 본받아라

전남의 대표축제 중 하나인 강진 청자문화제가 지난 17일 폐막됐다. 올해 13회째인 강진 청자문화제에는 지난해의 두 배에 수준인 68만 명의 관광객이 몰렸다고 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500억 원을 넘어섰다.

관람객 수로만 보면 청자문화제는 올 상반기에 치러진 함평 나비·곤충엑스포(126만 명), 담양 대나무축제(120만 명), 광양 매화축제(110만 명) 등 다른 축제에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고물가·고유가로 서민생활이 최악인데다 베이징올림픽에 따른 TV시청 등 악재가 겹친 상황을 감안하면 성공한 축제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의 발길을 강진 청자문화제로 끌어들였을까. 민선 자치 이후 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처럼 축제를 만들어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대부분 동네잔치 수준을 벗지 못하고 있기에 청자문화제의 성공 비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세계화다. 강진군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천년 비색 청자'를 들고 미국, 일본 등 해외 순회전시회를 해왔다. 그 결과 '청자=강진'이라는 인식이 세계 도자기 애호가들에게 심어져 올해도 6천여 명의 외국인이 문화제를 찾았다.

축제를 철저히 소비자 중심으로 리모델링한 점도 작용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에 맞춰 일정을 앞당기고 청자 빚기·물레 돌리기 등 가족단위 체험행사를 늘렸다. 입장 쿠폰을 사면 축제 상품권을 증정한 것도 주효했다. 불친절·불결한 음식·불쾌한 가격 등 '3불 없애기 운동'을 벌인 것 또한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줬다고 한다.

가을에도 광주와 전남에서 광주비엔날레, 광주김치축제,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등 각종 축제가 펼쳐진다. '세계화', '소비자 중심', '친절 서비스'로 압축되는 청자문화제 성공의 키워드를 활용해, '광주·전남 방문의 해'의 대미를 '대박'으로 장식하길 기대한다.

투자증가율 '제로' 경기 회복될 수 있나

올 상반기 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수준의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한다. 건설·설비·무형고정투자를 합한 총 고정자본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증가율이 0.5%에 그친 것이다. 투자 부진은 소비와 고용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투자증가율 0.5%는 지난해 상반기 6.2%에 훨씬 못미치고 지난 2001년 -3.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원인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부진에 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11.0%에서 1.1%로 낮아졌고 건설투자도 2.5%에서 -0.9%로 돌아섰다.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 수주 증가율은 올 2분기 8.5%로 지난해 21.1%와 올 1분기 25.2%에서 크게 둔화됐다.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국내기계 수주 증가율은 5.6%에 그쳤다. 민간부문의 투자 위축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내년 말쯤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상보다 늦은 것이지만 투자가 부진해선 내년 경기회복도 낙관할 수 없다. 투자 축소는 내수에 영향을 미쳐 소득 감소-소비 위축-투자 부진의 악순환을 부르게 된다.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기는 회복될 수 없다.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요인이다. 경기 전망이 어둡고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마당에 경영행태마저 보수적인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투자를 살려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 결정에 정책의 일관성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비롯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기업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기 바란다.

無等鼓

1달러와 신용경색

최근 미국 미시건주의 주택 1채가 뉴스 사진으로 보도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끈 적이 있다. 사진 속의 집은 저택은 아니지만 초록색 뾰족지붕이 있는 단아한 이층 주택이었다. 집앞에는 작은 잔디 정원이 펼쳐져 있고 좌우로는 정원수가 버티고 서 있다. 정원 사잇길을 지나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현관에 다다르는 전형적이고 평범한 미국 주택의 모습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이 주택이 뉴스에 오르게 된 것은 과자 한 봉지 값도 못되는, 단 1달러에 팔렸기 때문이다. 원래 6만5천달러짜리 집이었는데 1천100달러에 경매물건으로 내놓았으나 안팔리자 저당권자인 은행이 세금, 관리비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1달러에 처분했다.

미국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금융사들이 대출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고, 결국 주택시장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체나 부도를 우려해 은행을 비롯 대부업체들이 금고에 돈을 쌓아 두고도 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을 신용경색(Credit Crunch)이라 부른다.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경로가 막혀 기업과 가계가 자금난을 겪게 되는 것인데, 한국은 IMF 구제금융 당시 유동성 부족이라는 혹독한 경험을 한 바 있다.

경제개발 붐이 뜨겁게 일고 있는 중동의 두바이도 최근 신용경색을 겪고 있는데, 미국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사업영역을 대폭 늘리고 있는 기업체들의 자금수요를 은행들이 미처 맞추지 못해 유동성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반신용경색(Anti-Credit Crunch)이다.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정부로서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한국도 유가가 떨어지는데도 금리는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등 최근 신용경색의 조짐들이 금융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동성의 수급상 불균형이 빚어지지 않아야, 즉 돈이 제대로 돌아야 국가경제가 병들지 않는다.

/기현호 경제부장 kihh@kwangju.co.kr

음식물 낭비 심각…가계·사회적 비용 손실

음식물쓰레기통마다 음식물이 넘쳐난다. 상당 부분 그냥 버려지는 음식물들이다. 버려지는 식재료나 과일들은 모두 다 돈을 주고 샀을텐데 제대로 먹지도 않고 버리니 아깝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상추나 배추·열무 등은 4분의 1 가량 버리기 일쑤고 반찬은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이 해 다 먹지 못하고 변질돼 버려진다.

수박은 빨간 속부분이 20% 정도는 남긴 채 내다버리고 복숭아나 포도·자두는 조금이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통째로 버린다.

이러다보니 반찬이나 과일 등 부식비 때문에 가계 지출이 늘어나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그 처리에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발 주부들은 음식물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대충 먹고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우점순·광주시 동구 산수2동

학생들 책·걸상 인체공학 제품으로 교체했으면

공공도서관에 자주 간다. 책도 읽고 자료도 찾는다. 필자같은 일반인이야 기껏해야 서너시간 이용하고 돌아오지만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취업준비생들은 하루종일 앉아 있는다. 학생들은 거의 매일 그렇다.

그런데 열람실 의자는 작고 불편하다. 당연히 어깨·허리에도 좋지 않다. 청소년들이 편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인체공학 의자를 구비해줬으면 한다.

물론 공공기관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의자를 고급제품으로 구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이니만큼 예산 배정을 최우선으로 했으면 한다.

공부하는 학생이 놀러 온 것도 아닌데 의자 타령이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무거운 가방에 장시간 의자에 앉아있다보니 체형이 삐뚤어져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덩치는 커졌지만 체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아이들의 책·걸상의 때문이기도 하다. 사소한 일로 치부하면 별 것이 아니겠지만 조그만 깊이 생각하면 중요한 문제다. 교육당국과 학교 재단, 도서관 관계자 등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김선강·광주시 북구 용봉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